

노어노문교육, 언어훈련과 전공과정의 이원화로

김진원

고려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머리말

대학에 노어노문학과가 설치된 지 오래 되었다거나, 혹은 전국 각 대학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면 노어노문학과에만 국한하여 교육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나, 현 국내상황이 그러하지 않은 까닭에 노어노문학과뿐만 아니라 노어 훈련을 교육목표로 하는 노어과나, 지역학을 교육과제로 삼는 러시아학과 모두를 현황 파악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외국 어문학과와 학과명이 대체로 그러해서인지, 학교 밖의 많은 사람들은 ‘국어·문학과’에서는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국어’를 유창하게끔만 하면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으로 여긴다. ‘국어’는 사실 ‘국어학’(습득대상으로서의 ‘국어’가 아니라, 분석대상으로서 ‘국어’를 연구하는

분야)이나 ‘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국어’의 습득을 등한시하여서는 물론 안 된다. 부실한 도구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 4년의 시간을 횡으로 펼쳐 놓고 본다면, 습득의 대상으로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저학년인 1, 2학년 때, 즉 4학기 동안이고, 3, 4학년에서는 전공과목으로 어학이나 문학을 택하여 연구대상으로서의 ‘국어’나 혹은 ‘국어’로 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등의 공부를 하게 된다. 전공을 어학으로 선택하든, 문학으로 선택하든 전공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도구가 되는 외국어의 습득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어야 한다. 필요한 전공서적을 필요한 만큼 읽어낼 수 있는 준비가 전공공부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효과적인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전공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4학기, 시수로 24개월쯤 되는 셈이다. 과연 한 외국어를 24개월이라는 기간에 얼마만큼 습득할 수 있을까?

각 대학의 외국어문학과에서 외국어 수업(language training)은 대체로 어학이나 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분들은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 등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도구로 각 해당 외국어를 배운 분들이다. 모국어가 어떠한 말이고, 습득대상이 되는 언어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 두 언어의 간섭 정도가 사뭇 다르고, 그 간섭에 의한 난이도에 따라 학습지도나 교수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을 이 분들이 일일이 고려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아보거나, 혹은 최소한 학생들에 따른 케이스별 연구에 의한 결과를 기초로 적절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 시간이라는 일차적인 물리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각 해당 외국어 교수법을 전공한 전문인이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경우 각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를 확보하고, 이들을 지원해주는 어학교육원을 설립한 것으로 일단 제도적으로 한숨 돌린 듯한 인상이나, 이들은 보조적인 인력일 뿐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각 해당 외국어를 습득할 때 빚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전공으로 공부한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이 만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각 해당 외국어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의 각 외국어문학부에 대해 사회의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도 요구한다. “사회에서 다수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어학이나 문학과 같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력이다. 따라서 외국어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학에 대한 과목도 개설하라. 어학이나 문학과 같은 학문적인 과목은 대학원이나 진학할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된다. 대학도 이제는 진리나 고고한 학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기능인양성이 교육목표가 아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곤란한 요구이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다. 대학에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한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몇 가지를 공통의 개략적인 문제로 전제하고, 과연 노어노문학과와의 현 교육현황은 어떠한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자.

2. 현 교육현황의 문제점과 개선안

노어노문학과가 대학에 설치된 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언어훈련을 교육목표로 했던 한국외대의 노어과(1954)를 제외하면, 최초로 노어노문학과가 고려대에 설치된 것이 1974년이니 올해까지 기껏 20년이 된 셈이다. 국내에 러시아와 관련된 학과는 노어노문학과, 노어과, 러시아학과 등의 이름으로 30여 군데나 있다. 거의가 한·러 수교 전후에 설치 준비하여 10년 이내에 생긴 신생학과들이다.

각 학교의 학과 설립목적에 따라 어느 학교에서는 노어를 수단으로 노어학이나 노문학을, 어느 학교에선 노어훈련을, 어느 학교에서는 러시아지역학을 중점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을 무엇으로 하든 노어훈련은 어느 학교나 모두 공통으로 필수이다. 대체로 1, 2학년에 언어훈련을 위한 과목이 집중되어 있고, 전공은 3, 4학년 때에 이수하도록 교과목이 짜여있다.

노어훈련을 위해서는 각종의 교과목으로 이름을 달리할 뿐, 각 학교 모두 언어의 네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교에 따라 말하기 시간이 쓰기 시간보다 다소 많이 배정되어 있다든가 하는 정도의 기술적 차이는 있으나,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전공은 각 학교의 교육목표 혹은 교육과제에 따라 교과목을 배정했으니, 서두에 이미 적은 바와 같이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머리말에서 제기한 첫번째의 문제로 24개월(1, 2학년)의 기간으로 전공을 위한 일정 수준의 노어를 과연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노어는 그간 공통으로 배워 왔던 외국어인 영어와는 자음과 모음의 글자 모습과 소리가 너무나 상이하다. 이것은 언어의 기능 전 영역에 걸쳐 학습부담을 가중시킨다. 여기서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노어를 배운 학생만 입학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학점을 이수하여 2학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3학년으로 진급되어 전공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개념을 없애고 교과과정을 기초과정과 전공과정으로 양분하여 기초과정의 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노어과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한하여 전공과정 진급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초과정이 꼭 2년간이어야 한다든가 하는 기존의 학년 개념을 없애는 것이다. 전공과정으로 진급하기에 충분히 준비가 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했다면 2년 미만이라도 시험을 보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전공공부를 위한 필수적 도구인 노어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비록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더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했으나 노어 몇 마디 하기 어렵다는 현 자동진급제도의 단점을 보완

하여 일정 수준의 실력이 있는 졸업생 배출을 가능하게 한다. 대학은 입학하면 자동으로 졸업할 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수학기간이 짧을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배워서 나가는 곳이어야 한다.

머리말에서 두번째 문제로 제기한 언어훈련 및 전공 강의는 노어노문학과에서도 역시 문제가 된다.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노어를 안다는 이유로 노어학이나 노문학 전공자가 언어훈련과 관련된 강의까지 떠맡고 있다. 자신의 전공 강의야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 것이니 여기서 문제삼을 일이 아니겠으나, 언어훈련과 관련된 강의는 이들의 전공영역이 아니다. 자신이 과거 공부한 방법으로 가르치면 되겠지 하겠으나, 이것은 피교육자의 위치였던 데다가 대체로 15년, 20년 전의 구태의 연한 방법이 아닌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오히려 지금 형편에 그것이 자연스럽다거나, 당연스럽다고 여긴다.

더욱 곤란한 일은 일부의 경우 스스로가 노어교육의 전문가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과 관계 없이 출판 경쟁하듯 러시아어 학습문법책을 쓰고, 러시아어 학습교재도 만들고 한다. 노어를 읽어 이해할 줄 안다고 하여 모두 문학작품 번역에 뛰어 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제는 노어교육을 전공자에게 맡기거나 최소한 노어교육이 하나의 전공 영역임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각 대학마다 러시아어 모국어 사용자를 한두 명씩 확보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보조인력이다. 지금 당장 교육전문인원 확보가 어렵더라도 각 대학마다 노어학이나 노문학 전공자를 전임으로 충원하듯이, 노어훈련을 전담할 별도의 정원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희망자를 받아 노어교육방법을 공부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이

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노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각 개별학생들의 노어습득 성취 정도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단순한 언어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조망하여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민족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양식을 간접적으로라도 섭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사회 일각의 기능인 배출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자. 이것을 주제로 하여 논의한다면 아마도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이다. 논의는 생략하고 필자의 결론만 언급한다면 대학에서는 기능인의 양성보다 더 중요한 교육목표가 있다. 즉, 인문과학에서는 어학이라는 학문을 방법으로 하든, 문학을 수단으로 하든 인생이라는 혹은 인간이라는 큰 주제가 교육목표가 된다.

따라서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은 대학교육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이와 같은 요구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차적인 방법을 찾으려 한다. 부차적인 것이 언뜻 크게 보인다 하여 본말이 전도된 것을 대학에 요구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대학도 그것에 추종할 수는 더욱 없다. 대학의 교육목표는 세태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불변의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능한 한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차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 노어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된다. 전공과정을 위한 진급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노어 구사력 향상을 위한 과목을 개발하여 개설하는 것이다. 고유한 교육목표를 위한 학부 전공과목 외에 노어 기능인

으로서 사회진출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외국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학원은 외국어 모국어 사용자의 확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 외국어교육 전문가를 위한 정원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들로 하여금 보조인력인 외국어 모국어 사용자를 활용하여 진급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급반에서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위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원어로 토론이 가능하게 유도한다든가, 혹은 러시아의 각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어학원 담당 부서와 러시아 각지역의 관련 특정 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의 이해를 위한 연수를 계획한다든가 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생이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여 어학원의 기능을 대폭 확대할 수도 있고, 이것은 곧 예상되는 외국어 관련 교육개방에 대한 대학의 준비작업이기도 하다.

3. 맺는 말

청탁받은 원고의 주제는 “노어노문학과 교육현황과 발전 방향”이었으나, 노어노문학과만의 교육현황을 언급하기에는 학과가 설립된 학교 수가 적은 데다가, 노어노문학과 설립이 가장 오래된 고려대학교가 이제 겨우 20년 남짓한 역사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과 수년 전에 학과가 설립된 형편이다. 따라서 한국 전역의 노어노문학과 교육현황이 되기보다, 자칫 고려대 노문과의 교육현황으로 쉽게 초점이 모아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현황 파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러시아와 관

련된 학과 전부를 대상으로 삼으면, 학과명이
나 교육과제 혹은 교육목표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도 공통되는 현실적 문제인 노어교육 상황
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
문이다. 그러다 보니 거시적인 관찰시각만을
견지하게 되고, 게다가 지면의 제약마저 있어
노어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
의할 수가 없어 아쉽다. ■

김진원/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보름 대학에서 노어학 및 슬라브
어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
수로 재직중이며, 저서로 『러시아 언어학 연구의 방법
과 문제』(공저) 등이 있고, “조어론에서 고려해야 할
인식 및 명명의 문제”, “텍스트 연구의 문제점” 외 다
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大學教育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0-7942, 783-3891,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교수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참고사항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
습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
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
정·보완할 수 있습니다.